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주일
제32권 8호(나혜) 2012.1.15

[묵상]



제자를 부르심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를 보시고
“무엇을 찾으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역시 시몬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어디에 묵고 계신지 궁금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초대하십니다.
그들은 함께 갔고 그분이 계신 곳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눈여겨보고 계시며**
저희와 함께 묵으시자고 초대하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저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예수님,
단순하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 영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저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만나길 원하던 그들은
꿈을 이루었고 메시아의 일꾼이 되어
온 삶을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행복하길 원합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합체)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째 토요일)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바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형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주 일 낮 미사	(연) 송재진 루도비코, 심찬유 마리아, 송기인 요셉, 유정이 베로니카, 오진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박영준 안토니오, 김경숙, 박동욱 요셉, 김형태 야고보, 소창영 & 소준주, 신대동 요아킴, 이차영, 윤재림 마리아, 김풍자 마리아, 백남실 루스, 소효균 요셉 & 소수연 안나, 윤희중 (생)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윤안토니오 & 세라피나의 은인들, 강순복 요세피나 가정, 이승찬 라파엘, 정학순 발바라, 김영철 바오로, 김정용 요한 & 김춘자 막달레나의 대자녀들, 송크리스티나 & 타미 & 바오로, 유은영 아네스, 송호창 요셉 & 송호민, 신대철 알베르토,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의 자녀들, 홍숙자 막달레나, 강상훈 라파엘 & 양희수 오틀리아 가정, 이문종 바오로 & 김난숙 마리아 가정, 김병학 대건 안드레아 &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가정, 김용 스테파노 & 박문주 엘리사벳 가정, 과달루페 성지 순례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상권(1 Samuel) 3,3-10.19

화답송 ○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 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 나 이 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그분은 나에게 몸을 숙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6,13-15.17-20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네. ○

복 음 요한(John) 1,35-42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6	246	182
봉헌	351	259	265
성체	307	282	280
파견	246	214	226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말씀의 종말론적 차원

그것은 어떤 예언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고(1테살 5,19-21 참조) 현재의 시점에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적 계시는 주어져 있는 도움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길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길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령

15). 하느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신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에 대한 고찰을 마치며, 이제는 하느님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상, 위로자(파라클리토)의 작용 없이는 그리스도교 계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자기 통교가 언제나 리옹의 이레네오가 “아버지의 두 손” 이라고 불렀던 아드님과 성령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 역사 안에, 특히 성령의 작용으로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신(마태 1,18; 루카 1,35 참조) 예수님의 삶 안에 성령께서 현존하심을 알려 줍니다.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실 때에, 그분은 요르단강 가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십니다(마태 3,1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그 성령 안에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십니다(루카 10,21 참조). 또한 그 성령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십니다.(히브 9,14 참조). 당신 사명을 마쳐 가실 무렵, 요한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목숨을 바치시는 것과 당신께 속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분명하게 결부시키십니다.(요한 16,7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육身に 수난의 표징들을 지니고 계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시어(요한 20,22 참조) 당신께 속한 이들을 같은 사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요한 20,21 참조).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요한 14,26 참조). 진리의 성령, 바로 그분께서(요한 15,26 참조) 제자들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요한 16,13 참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마리아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 내려오시고(사도 2,1-4 참조) 그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촉구하십니다.

아픔에로의 부르심

요한의 두 제자는 “와서 보아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묵고 계시는 곳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묵고 계시던 곳은 어떤 곳이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탈무드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벤 레비라는 한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가서 그분에게 물어보시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상처투성이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치료할 때, 감았던 붕대를 전부 풀었다가 다시 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금방 달려가 도와주려고 자신의 상처에 감았던 붕대를 조금만 풀고 치료를 하십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메시아는 상처 입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자신도 상처를 입은 처지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전설 속의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과 무척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가운데 계셨고, 날이 저물도록 그들을 고쳐주시곤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인간이 지은 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당신 손발에는 못 구멍이 뚫렸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은 바로 ‘아픔의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세상이라지만, 아픔의 자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픔의 자리에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나 약품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더욱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 아픔이 있다. 이제는 너희 차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는, 무풍지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와서 보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픔에로의 부르심’입니다. “아픔을 보고, 아픔을 함께하고, 아픔을 치유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픔이 있는 곳에 있건만 우리의 몸은 마냥 편하기만 원합니다. 서 있는 것 보다 앉아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 보다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또 그냥 누워 있는 것 보다 잠자는 것이 더욱 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편한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육체적편함의 마지막은 무의미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몸을 잘다스려야 합니다. 늘 편안함을 떠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릅니다. 우리의 몸은 쾌락의 온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며 의 일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신덕례 대례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권순길 체칠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청년회 스킵트립, 전례부에서 대신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		토런스 남 1반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1월

◆ 과달루페 성지 순례 : 16일(월)~19일(목)

작년 본당 설립30주년을 맞아 1년간 계속한 전신자 신구약 성경통독을 끝내고 그 은총의 여세에 힘 입어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교우 32명이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의 길에 나섭니다. "...이 순례의 여정이 성모님과 성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그 발자취에 우리의 발길을 맞추어보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순례자 오리엔테이션 : 오늘 주일(15일) 1:30pm 성전
- 수/목요일(18일,19일) 저녁미사 없습니다.
- 사무실 Closed : 16일~19일

◆ 임진년 '설'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월23일(월)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후 세배(오전)와 떡국 나누기(오전/오후)
- 미사에물 봉헌 : 22일(주일)까지 사무실

◆ 울프레아 신년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5일) 낮미사후 회의실
- 점심을 함께 나누입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자동차 축복식

- 일시 : 오늘 주일(15일) 낮미사와 점심친교 후 12시45분
- 장소 : 사제관 앞마당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1월18일(수)~25일(수)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22일(주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울리아 본당 대표부부 ☎(310)780-9055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오는 2월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29일(주일)까지 사무실, 성물부 김막달레나
- 봉헌미사 : 2월2일(목) 오후 7시30분

◆ '성경공부'(그룹반) 개설

- 2012년은 '마르코 복음'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 시작하는 날 : 수요일- 2월8일 오전 10시
금요일- 2월10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사무실앞 강의실
- 동반자(지도) : 본당 수녀님
- * 2월5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회 스키 트립

- 일시 : 1월20일(금)~22일(주일)
- 장소 : 빅배어,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박수민 히메리오 청년회장 ☎(310)944-4579

◆ 배론 청년회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매달 2번째, 네번째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후
- 장소 : 성체 조배실 * 준비물 : 성경

◆ 신임 꾸리아 간부진 출범

- 일시 : 1월8일 제27차 꾸리아 월례회의 투표에서 선출
- 신임 간부 : 단장 최기남 야고보(유임), 부단장 전복래 데레사, 회계 이태옥 아가다, 서기 서창호 바오로

◆ 백삼위 라인댄스 강습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성당 강당
- 강사 : 전베로니카(가디나 한국문화회관 라인댄스 강사)
- 후원 : 사회복지분과, 성모회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15일(주일) : 토런스 남1반(김치찌개백반 \$3)
- 1월22일(주일)토런스 북구역(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김대우 김종훈 방정복 우영희 임 순 하정화	구자운 김미현 김준호 박정희 원건희 장춘수 한연만	김관기 김상규 김현숙 배기엽 윤석구 정규숙 한혜숙	김광자 김선제 남명자 배태임 이경용 이상석 주용범	김교복 김옥보 노혜숙 손춘화 이상석 이영희 최의수	김기석 김 옥 민형기 송기철 이영희 이은록 최이원	김기정 김정웅 박씨니 송준규 이은록 최이원	합계 : \$3,400
미사헌금 : \$2,803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오늘 주일(15일): 마틴 루터킹 Jr. 기념일 연휴에 따라 수업이 없습니다. (학생미사 있음)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12학년
- 일시: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190(접수: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2월28일까지 선착순 30명(Deposit \$20)
- 문의: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

- 대상: 2012년 11월 첫째주(토)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9학년 이상)
- 모집기간: 1월30일까지(5명 이하인 경우 최소됩니다.)
- 신청: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김본경 올리아 교장 ☎(310)713-2669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1월22일(주일)부터

◆ '십자가의 길' 기도문 공용 비치

- 지향에 따라 주제가 다른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공용(성당 비품)으로 비치하여 두었습니다.
- 비치장소: 성모상 앞 돌의자 사물장, 사무실
- 주제: ♡성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김수환(목상)/장익(여음) 십자가의 길 ♡청소년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은 대중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 일시: 1월21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
(영화감상 및 나눔 피정)
- 상영영화: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 짐 캐리 주연)
- 장소: 성 프란치스코 성당 ☎(310)324-8159
- 지도: 황광우 요셉 신부(성모기사회 북미주 지도)
- 피정비: 1인 \$20(김밥 제공)
- 2012년 일정: 1~5월 매달 세번째 토요일

◆ 성 아그네스 성당內 이나시오 카페 오픈

- 커피 감정사인 LA 아그네스 성당 최대제 신부가 기도와 기술을 통합시킨 커피를 만들어 냅니다. 아그네스 성당에 오시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로스팅 된 원두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 (323)731-4433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관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13(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4(토) 오후 7시 성당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2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오창애 안나 974-2857 1/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2(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재용 안드레아 994-6782 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3(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최벨라렛다 213-718-0310 1/14(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송종두 요한 544-1267 1/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6(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2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구인: Liquor Store Cashier(스탁 일을 겸하실 분)

주 40시간 근무(월/금 + 임페리얼에 소재)

* 문의: ☎(310)713-25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1코린 15,51-58)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금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을 맞아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추진평의회와 세계 개신교를 대표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묵상하면서 갈라진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적 일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악과 폭력, 고통과 죽음을 넘어 하느님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존과 협력, 상생과 화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참된 평화와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갈라지시기라도 한 것처럼”(1코린 1,13 참조) 서로 분열되어 있는 현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할 지극히 거룩한 대의를 손상시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일치교령 1항).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분열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서로가 지닌 오해와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인류를 위한 공동봉사로 사용할 때 진정한 일치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치시켜 주십니다.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름으로써 더욱 그분께 가까워지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앙과 복음으로 일치되어 있음을 깨닫는 길은 우리의 편견과 오해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같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열립니다.

금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가 개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황님도 금년을 신앙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신앙과 삶이 서로 일치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공의회는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교회

안에서 세속화와 권위의 상실, 이기적 욕망과 이념적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와 일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며 쇄신하고 세상의 표징들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며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개신교와 갈라진 역사적 아픔도 되새기면서 형제적 사랑으로 화해하고 일치하는 길도 모색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과의 갈등과 분열을 체험해온 한국 교회 역시 이 땅에 참된 일치와 평화를 위해 화해와 공동선을 위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21)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서로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땅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죽음의 공포들을 이겨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궁극적인 승리를 한 목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는 임마누엘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생명을 덮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겨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로 일치해야 합니다. 비록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시적인 일치가 여전히 요원하게 느껴지는 현실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 경쟁이 아닌 은사의 나누기를 통해서 참된 회심과 변화로 초대하십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복음적 삶과 활동을 통해 평화와 일치를 이루어주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서로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과 죄악을 넘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기쁨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과 불신의 벽을 넘어 사랑으로 일치하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이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힘을 향해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우정을 통해 우리 서로가 나누는 우정과 협력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